

대행 스님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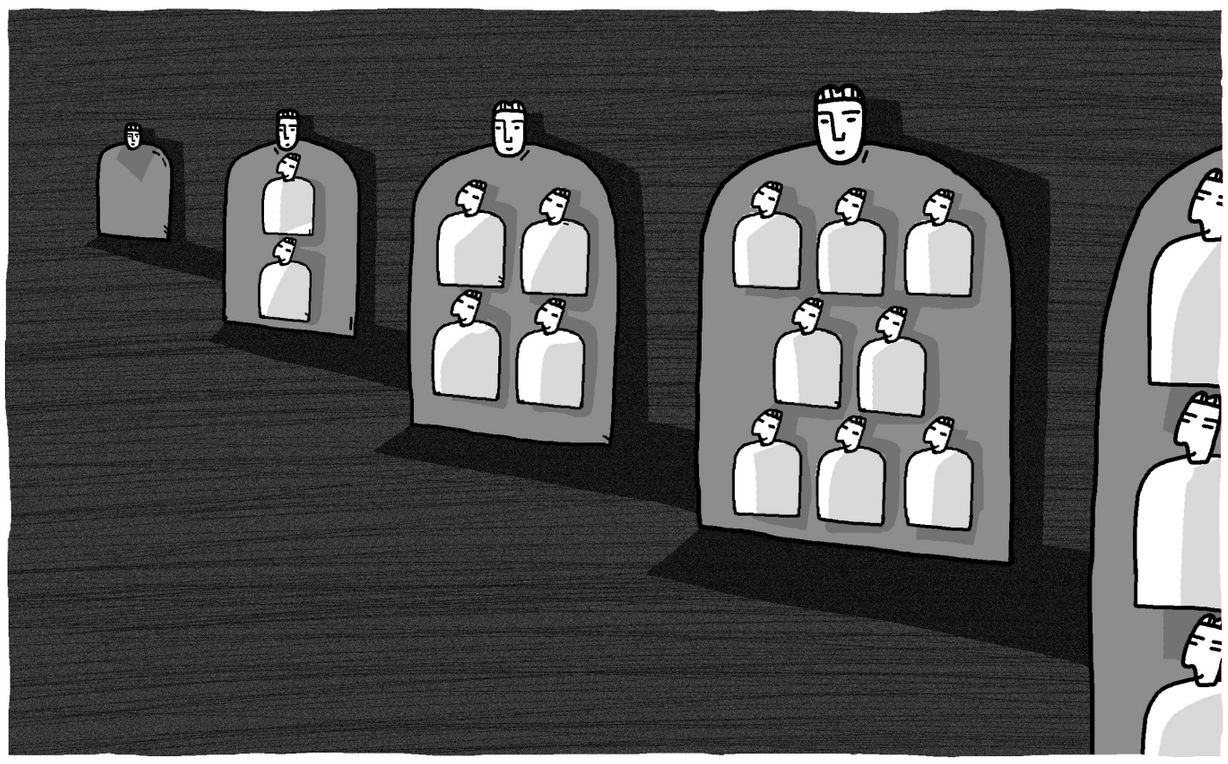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듯합니다. 하지만 한 찰나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같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력을 내가 끌어 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리만큼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꾸자꾸 화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끌어 쓰는 데 달려 있다 이 소립니다. 끌어 쓰는 그 자체가 묘한 도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큰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끌어서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 인과 필연의 법칙. 우리의 몸과 생명, 정신 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전되고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불도 중생도 이 모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볼 때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명심불망' 이라고 있습니다. 오종대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종대은이라는 뜻은 일체제불의 종지를,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씨, 불씨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우리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못하든 잘하든,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지 어느 부모가 잘 이끌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어딨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입니다.

그와 같이 '그 뭐, 대통령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지만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각 나라의 임금과 임금이 접하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내 나라를 중요시하지 남의 나라를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든지 마다 안 하고 하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은혜, 낳고 길러 주고 가르치고 그랬건만 머리털이 세어서 죽을 때까지 내내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시키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불의 은혜, 바람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모두가 감사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둘 아닌 도리를 얼른 납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수차에 말을 해 왔지만 거기서부터라도 얘기합시다.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면서 잡아먹히면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올 동안에 남의 자식도 됐었고 남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자식도 됐었고, 사람의 부모도 됐었고 사람의 자식도 됐었고,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좁게 보고 한 가정에서 요 한 철 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쳇바퀴 돌아가듯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진화되고 화하는 도리를 안다면 아마도 네 부모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내 부모니까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둘 아닌 도리를 확실히 증득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행이 나오고, 진실한 구함이 생기고, 진실한 구함이 생김으로써 진실하게 나 아닌 나의, 참나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말을 하지만 불교라는 그 자체가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말과 말이 통하는 것이 교라 한다면,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존경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얽히고설키고 돌아가는 이 통함이 바로 교란 말입니다.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에서 통하듯이 또는 저런 곤충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개미도 요만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하면 물고 그냥 가지만 큰 과자를 하나 발견했을 때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금방 소식이 통해서 그냥 떼로 지어서 옵니다.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말 없이 말을 전달하는 이 소식 말입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곤충들, 하다못해 무정물까지도, 목신까지도 원한다면 다 응해 주십니다. 응해 주시되 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면 한 찰나에 드실 때 뱀으로 응하신다 이겁니다. 뱀으로 응하셔야 뱀이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을 천태만상으로 나투시면서 응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 주시고, 지장을 염하면 지장으로 나투어 주시고, 약사를 염하면 약사로 나투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죠.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까지도, 곤충 하나까지도, 안 보이는 세상의 모두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다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 마음의 보시, 이것은 제일 으뜸 나는 무주상 보시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물질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보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붙었다 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고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죄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또 '나는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가 다 녹아야 된다' 하는 조건, '나는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과거로부터 이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서 그,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줘야만이 마음으로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명을 벗겨 줄 수 있고, 그 소의 의식을 바로 나한테로 넣는다면 즉시 그건 죽지도 않아서 벌써 환토를 한 거죠. 천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벗고 사람이 돼서, 굴려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때 그 소는 은혜를 생각해서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끝 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대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 22면으로 계속

